

# “새만금 예산 원상 복구하라”

# 황금반지 찾고...야행도 즐기고...

##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200% 즐기는 법

대한민국 최초로 붉은색(Red color)을 주제로 한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군은 오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장수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에서 열리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더욱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다.

올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총 7개 분야 7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축제가 될 전망이다.

△장수 한우마당 이번 축제에서도 장수한우마당이 진행될 예정으로 2,500석 규모의 셀프식당이 운영된다.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한우를 구입해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도 호응도가 매우 높다.

△토마토 속 황금반지를 찾아라 토마토 속 황금반지를 찾아라는 장수군의 대표 농특산물 중 하나인 토마토를 활용한 행사로 토마토를 던지고 밟고 으깨며 토마토 속에서 황금 반지를 찾는 놀이 프로그램이다.

16일 토요일, 17일 일요일 2회 진행



사과낚시체험 모습

되며 반돈의 황금반지가 걸린 만큼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 콘포나르기 대회 한우 콘포나르기 대회는 한우 먹이로 사용되는 250kg 대형 콘포를 한 팀이 나르는 대회로 우승 팀에게는 상금이 주어진다.

△장수야행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장수야행. 장수야행은 장수군의 대표 역사, 문화 유적지인 의암공원, 의암루, 논개사당 등을 이야기꾼과 함께 돌아보며 역사를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장수 한바퀴, 오사토의 달인을 찾아라, 사과낚시체험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의회, 예산 삭감 규탄 성명서 발표... “도민과의 약속 이행해야”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의원들이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성명서’에 힘을 모았다.

진안군의회는 5일 의회 광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무분별한 새만금 예산삭감과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규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3만 진안군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전라북도에 대한 차별과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예산안에 대해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국가주도 행사인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사과하기는커녕 지방정부의 탓으로 돌리기 급급하고, 재정당국에서는 국가계획사업인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전라북도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선후보시절부터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전북 제1공약으로 제시하며 속도감 있는 새만금 약속을 개발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새만금지역 도로, 공항, 철도 횡단 등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책임



진안군의회는 5일 의회 광장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무분별한 새만금 예산삭감과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새만금 사업은 3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호남과 당리당락을 떠나,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목표아래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며 “보복성 예산편성이 아니라면 새만금 관련 정부예산안과 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 중인 사업비가 각각 75%(당초 : 7,389억원, 반영 : 1,861억원), 78%(당초 : 6,626억원, 반영 : 1,479억원)씩 삭감된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의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을 통해 공항, 횡단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제안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전북 도민과의 약속을 윤석열 정부는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작금의 갈등과 혼란을 하루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철회와 같은 후속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제11회 무주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 6개 읍면 151개 마을 이장들 참가 화합행사·표창 수여 등 진행

제11회 무주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5일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에 맞아 무주군 관내 6개 읍면 151개 마을 이장들이 축제를 즐기며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전라북도 도의원, 배종호 전라북도 이장연합회 회장과 정육기 진안군 이장연합회 회장, 박장욱 장수군 이장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무주군 이장협의회 회원 등 2백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육혜영 주무관과 무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이인엽 팀장, 설천면행정복지센터 개발팀 김수환 주무관, 적상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배지연 주무관, 안성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김진만 팀장, 부남면행정복지센터 개발팀 김상환 주무관은 무주군 이장협의회에서 주는 감사장을 받았다.

또 김성근 구천동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무주군산림조합 이기천 과장과 무주농협 윤기중 과장,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무주양수발전소 측에도 감

사패를 수여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장님들의 넘치는 기운, 긍정적인 마음을 무주반딧불축제에 불어넣어 주시고 그간 농사 짓느라 이웃들 챙기시느라 고생하신 서로에게 힘이 되면 좋겠다”며 “무주 발전도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도 무주군의 기동인 이장님들께서 관심 기울여주시는 만큼, 주민들과 동참해주시는 만큼 커진다는 생각으로 함께해달라”고 전했다.

이어진 명랑경기 시간에는 후호와 제기차기, 족구 등이 펼쳐졌으며 화합행사는 장기자랑으로 진행돼 흥을 돋웠다.

행사 참가자들은 체육대회가 끝난 후 반디누리관 등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장 곳곳을 돌아보고 소녀 가수 완이화 콘서트, 반디 복합문화광장(예체문화관 주차장)과 반디휴게광장(김환태문화관 & 최복미술관), 전통공예공방 앞 무대에서 펼쳐진 버스킹 공연 등도 자유롭게 관람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금연·금주 구역 지정·운영

무주군이 간접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금연·금주 구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군 금연 구역 제1호는 무주읍 ‘무주수푸름아파트(74세대)’로 해당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박하영 팀장은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자발적으로 동의·신청하면 지정하는 제도로 다른 공동주택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12월까지

반딧불소식지를 비롯한 무주군 누리집과 이장회의,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흡연행위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무주군 관내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5곳 등 학교 절대 보호구역 22곳은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주 구역은 강당과 운동장, 쉼터 등 학교 전체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로 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장수군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5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 라는 주제로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평순)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와 장정복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여성단체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성평등 사회를 위한 발자취를 돌

아보고 앞으로 사회에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논개난타팀의 난타공연과 결혼이주여성 및 장제라인댄스팀으로 구성된 라인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발전 유공자 표창(공무원 1명, 개인 8명, 우수단체 1단체), 축하, 여성단체 활동 영상상영, 양성평등 퀴즈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 통

###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대상자 선발 공고

진안군은 지난 1일부터 2023년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은 관내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진안군 대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여 지역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학생에게 연 1회, 100만원의 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공고일(9월 1일) 기준 주소가 진안군에 1년 이상(단, 관외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2년 이상) 주소

를 두고, 2년이상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평점 평균 C(학점(70점)이상인 자이다.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방문 및 등기우편)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고문 확인 또는 진안군청 행정지원과(063-430-2157)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진안군에서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세계 자살예방의 날 행사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위상양)는 제20회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5일 장수교육지원청 특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행사를 진행했다.

매년 9월 10일로 지정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은 전 세계에 생명

의 소중함과 국가적·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이에 따라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저자인 백세희 작가를 초청해 청소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오는 8일 장제시장에서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캠페인을 펼쳐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 인식개선 및 확산에 힘을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